'내'가 없고 '함이 없이' 해야 공덕

☞ 19면에서 계속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일불로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도 그거를 빨리 수습할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정에 이익하고 화목하고, 공부를 하면 저절로 화목해지고 또 자식들도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이래도 다 화목하게 화합하게 되고 또 나가서 안 들어오지 않고 자꾸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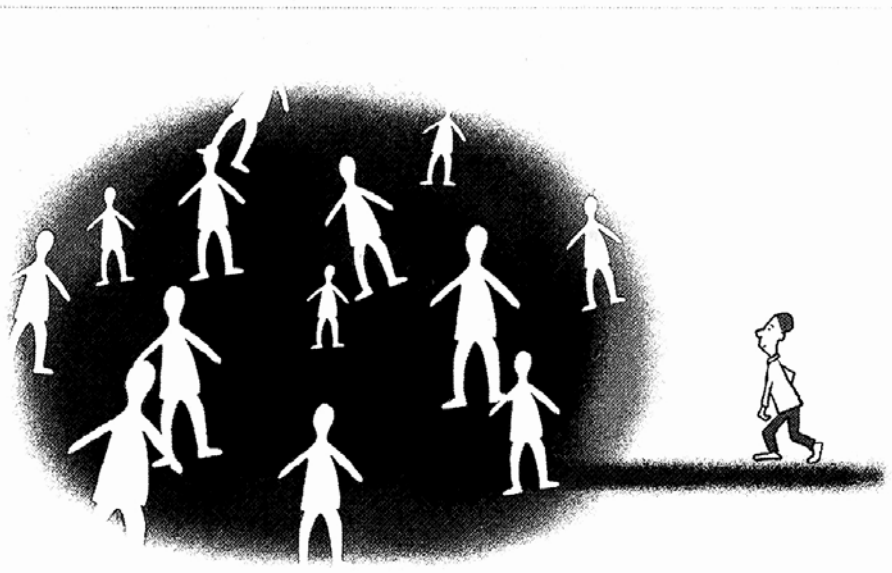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믿어야 종문서 없어져

그래서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습을 믿지 말고, 부처님 모습을 믿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화두로 삼으라고요. 왜들 자기 아닌 자기를 믿으라는데 왜 못 믿는 거죠. 이상해요. 왜 자기 주인공이다 하고 불성이다 하고 자불이다 하고 그 이름은 많지만 자기 주인공을 자기가 믿으라는데, 대체적으로 주인공이다 하면 요즘 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자기 주인공이 자기 보디가드다. 너를 항상 떼 놓지 않고 따라 다니면서 네 노릇을 한다. 그게 진짜 너다. 그래서 예전에 모습은 배로 비유를 했고, 그 모습 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했고, 또 주인공은 선장으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적절하게 얼마나 비유를 잘 해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이 날까지 그거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앉아 있는 분이 앉았다가 그냥 내려오거든요.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있는데 마음이 그 때 어떻습디까 하니깐, 내가 없으니 그런걸 모른다고 하더랍니다. 흔들리는 게 어디 있으며 무서운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내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드렸으니깐 간단하게, 이 세상만사가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배우면서 그 속에 들은 거를 생활해 가면서 자꾸 배우세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밥을 굶는데 뭐 그 까짓 걸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말입니다. 내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밥을 굶는 놈도 그 놈이고 필요 없다 하는 놈도 그 놈이거든. 그러니 그런 소릴 해 봤자죠 그거. 내가 부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런다면 문제가 다르죠.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은 UN에서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싸움을 그치고, 싸우지 말고 부드럽게 나누어 먹을 수 있었으면 하고 무척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원리가, 공생이다 공심, 공체라는 이 도리를 모르게 되면요, 아예 사람들이 그 뜻을 도무지 생각을 못하거든요. 착해질 수 있는 생활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거를 단 몇 마디로 종결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 모두 한 주머니에서살고 있지 않어? 그 다음에 네 몸뚱이에서도 한 주머니에서 살고 있지 않어? 그러니 이 물 한 컵을 먹어도 네가 먹는 게 아니잖어. 더불어 같이 먹고 있지. 그렇게 하면서 공식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가죠. 그게 없는 말이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변하지 않는 금이 되실 겁니다. 허허허.

▲질문자1: 스님, 이렇게 저희 중부경남지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 주신 것 정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중부경남지원 신도 윤현숙입니다.

▲스님: 예.

▲질문자1: 스님 저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지원에는 부처님 한 분만 모시는데 저희 지원에서는 어떻게 해서 부처님 십대 제자 중에서 아난 존자와 가섭 존자 두 분을 좌우 보처로 모시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苦 없애려면 다시 놔야 없어져
불상 1만기라도 하나와 같아

▲스님: 참 잘 물으셨습니다. 근데 어디나 다 똑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른 지원에는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단 부처님 한 분만 계시니까 그거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섭 존자하고 아난 존자 두 분을 모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바로 맞았다면 아마 법당도 짓고 다 지을 겁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기모습을 화두 삼아

▲스님: 한 분은 생각하고 한 분은 쓰고 그랬던 분들이니까 이게 한 분이, 생각하는 게 법이거든요, 공법. 그러고 쓰는 데 공심으로서 행해나가니까 두 분이 딱 옆에서 그렇게 하셔야죠. 부처님은 부처님 아닌 것이 부처님이에요.

▲질문자1: 예.

▲스님: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 아닌 게 부처다 이런 말입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보통 해수 관음보살님은 바닷가에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 중부 경남지원에 저렇게 해수관음보살 상을 모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스님: 물이나 들이나 산이나 다 평등해요. 근데 우리가 산에 이렇게 집을 짓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돌봐주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응신이 돼서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돌보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음보살도 되고, 지장보살도 되고 뭐 어느 거 아니 되는 게 없는데 이름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극한 정성으로 언제나 나하고 둘이 아니지 하는 거, 언제나 친근한 마음. 여러분의 모습이 큰일이 생겨서 깡충깡충 뛸 때 친근하면은 저 보살의 모습은 거기 계셔도 다 해결을 해 놓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친근한 그 보살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공부도 완전히 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참 괴로우실 거니까 이 모습이 없으면 안되죠. 그래서 우리는 모습을 만개를 해 놨어도 하나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 개를 해 놓아도 만개를 배우는 사람은 만개가 필요할 거고 만개를 하나로 배우는 사람은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여러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차원대로 공부해 나가면, 친근하게 하시면 아마 올 때마다 말도 주고받을 겁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갈 때 나무 뿌리가 간당간당해서 뿌리가 땅에 닿질 않고 간당간당한 걸 보면은 "여기 흙 좀 덮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깐 말 안 하는 게 없다니까요. "흙 좀 덮어 주세요." 할 때 그게 내가 아닌 내 마음이라면 그걸 덮어줄 수 있지만 나라고 하고 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게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고 할겁니다. 개미 하나를 봐도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고 그럴 겁니다.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갈 뿐이죠. 그러나 보살들은 그걸 봤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걸 들어서 옮겨 주고 갑니다. 남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응신의 재주이니까요. 여러분 잘 물으셔서 잘 아시니까 그러고 또 저기 영탑 해 놓은 거 말입니다.

전에는 스님네들이 돌아가시면 부도탑을 해 놨습니다. 근데 왜 요즘은 스님네들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하고 그냥 화장을 하거나 또 일반적으로 산소에 묻느냐 이런걸 생각을 한 것이 미국에 가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거를 해 놨는데 그게 3000엔을 주고 했다면은 또 몇 달 안가면 3000엔을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거기다 모실 수가 없구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안에서도 냄새나고 바깥에서도 냄새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모실 수도 없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땅에다가 그냥 탑을 해 놓고, 땅을 마련해 가지고 그냥 아예 너희 탑을 만들어라. 조상 탑을 만들어라 이런 거죠. 조상 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영혼들이 자식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스님네들을 따르면서 공부를 해서 훨훨 털고 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재생하는 데도 쉽게 할 테고 또 나가서는 아주 못하는 사람은 좀 더딜 거고, 더뎌도 하는 건 하는 거 아닙니까? 뜻으로는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거 하는걸 보고선 다른 데서 모두 이거를, 똑같게는 안 해도 그거 뭐 납골당, 납골당을 아주 보기 좋게 잘 한 대요. 근데 그건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드럽게 나누며 살라

그런데 위패를 해서 모시는 거 아예 나는 질색해요. 재사를 지내고 나서 태우고 다음에 또 청해서 하시라고 그러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부처님 법을 말하지 않고 저런 말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함이 없이 하는 도리와 포함해서 돌아가는 도리와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사는 이 도리가 이렇다는 걸 얘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을 해서 열심히 그렇게 관하세요. 그래서 법당에 들어가도 부처님 형상이 내 모습과 둘이 아니니까 항상 거기다가 다 쏟아 놓고, 예배를 올리되 다 하고 나서는 내가 다시금 그 자리에다 놓고 나오는 거죠. 그래야 여길 가도 자기 부처는 여기 계시는 거고, 저길 가도 부처님은 저기 계시는 것이고, 변소에 가도 부처님은 변소에 계시니 아니 계시는 데가 없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잘 알아서 행복하게 사시고, 자녀들에게도 될 수 있으면 그 관하는 도리를 일러 주세요. 일러 줄 때는 안 듣고 안 하는 것 같아도 정히 괴로우면, 살다보면 괴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관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셔서 자식들도 밝아지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없이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2000년 4월 30일 중부경남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불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 · 가 · 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밑 불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당뇨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중미산 불심정사 전화번호 : (031) 771-1571 정강대 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불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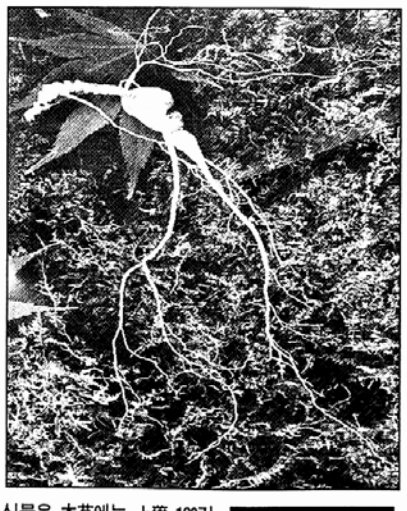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흩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